

비표준 종결어미 ‘-을까요?’와 ‘-실게요’ 분석

윤재학* · 김기국**

(경희대학교)

Yoon, Jae-Hak & Kim, Gigoon. (2022). An analysis of non-standard sentence endings *ulkkayo?* and *silkeyyo*.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30(4), 63-84. Examining two non-standard sentence endings in Korean, we make an observation about the *ulkkayo?* form and make a case for a grammaticalization process for the *silkeyyo* form that provides a more intuitive explanation than in previous studies. An emerging non-standard use of the *ulkkayo?* form involves questions about something the listener must have direct access to, such as his or her own current state of mind or the number of his or her children, whereas the modality of the *ulkkayo?* form only describes a conjecture or surmise. It is illustrated that its anomaly derives from an incompatibility between questioned topics and the weak modal force of the form. The other non-standard sentence ending, the *silkeyyo* form, is an odd combination of the honorific marker *si* and *ulkeyyo*, the first person sentence ending, because rules prohibit self-honorification. It is hypothesized that this is the result of a grammaticalization process where a speaker utters the listener's expected answer, thereby shortening a conversational exchange in a hectic customer-service interaction. It is observed that the emergence of these non-standard forms reflects a society where politeness in the public sphere remains a high priority. Even when time efficiency forces a grammaticalization, it appears that a considerable effort is exerted to preserve a high level of politeness.

주제어(Key Words): 공손성(politeness), 문법화(grammaticalization), 비표준 종결어미 (non-standard sentence endings), 실게요(*silkeyyo*), 있을까요?(*ulkkayo?*)

* 제1저자

** 교신저자

1. 머리말

다음 두 유형의 예문은 비교적 최근의 대화에서 점증적으로 관찰되는 사용으로서 최소한 세 가지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 (1)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 (2) 다음 차례에 들어 가실게요. (조숙환, 2009, p. 114)

첫째, 두 유형이 모두 비표준적 사용이다. 둘째, 이 유형은 주로 서비스업 현장에서 사용이 시작되어 다른 분야로 전파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 예문을 마무리 짓는 종결형태 ‘실까요’와 ‘실게요’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인 ‘을까’와 ‘을게’가 핵심적 의미요소를 공유하는 질문/응답 짝을 이룬다. 의문형 종결어미와 평서문의 종결어미가 짝을 이루어 대칭적 기능을 가지는 바탕에는 청자의 허락이라는 의미요소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문 (3)에서 두 문장은 화자가 행위 의도를 가지고 청자의 허락을 구하는 의미 (3a)와 청자의 허락을 전제로 화자의 의도를 전달하는 의미 (3b)를 갖고 있다.

- (3) a. 기온이 낮으니 불을 피울까?
- b. 기온이 낮으니 불을 피울게.

예문 (2) 유형은 일반인의 지대한 관심을 받아 언론매체에 꾸준히 조명되고 이와 더불어 학술적 연구대상으로서 다수의 학술논문에서 이론적 설명이 시도되었다(조숙환, 2009; 박재연, 2013; 박미연, 2016; 안주호, 2017). 반면에, 예문 (1) 유형은 비표준적 사용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은 물론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대조가 발생하는 배경에는 예문 (2) 유형이 ‘시+을게요’의 결합 ‘실게요’가 매우 생소한 연쇄인 반면, ‘실까요’라는 연쇄 자체는 표준적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자리 잡고 있다. 예를 들어 아래 예문에서 ‘실까요’ 연쇄는 표준적 사용이다.

- (4) a. 아버님이 내일 오실까요?
- b. 사장님 말씀이 있으실까요?

본 논문에서 우리는 (1) 유형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화용적 설명을 시도하고, (2) 유형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개선하여 두 유형에서 관찰되는 유사성이 어떤 점에서 공손성이 요구되는 서비스업과 연관된 것인지 통합적 설명을 시도하겠다.

2. ‘실까요?’ 분석

위에서 언급한 다음 예문 (1)은 비교적 최근에 20대의 대화에서 등장하여 전 연령층으로 확산하고 있는 표현이다.

(1)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이 문장 유형은 전통적으로 쓰여 오던 아래 예문 (4)와 외견상 유사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4) a. 아버님이 내일 오실까요?
b. 사장님 말씀이 있으실까요?

즉, ‘실까요’는 표준적으로 (4)와 같은 3인칭 주어와 어울린다. 그러나 예문 (1)에서는 2인칭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비표준적이다.

본 절에서는 ‘실까요’ 연쇄의 바탕인 ‘을까’의 의미를 살펴보고 여기에서 파생된 ‘실까요’의 의미와 기능을 고찰한다. 본 절에서 관찰된 ‘을까’와 관련된 사실은 3절에서 ‘을까’의 응답 짝인 ‘을게’를 기본으로 구성된 ‘실게요’의 논의와 연결될 것이다.

2.1. ‘을까’의 의미

김하수(1979)는 개별적으로 ‘을까’를 다룬 대표적 연구로 주어의 인칭과 서술어의 유형에 따라 ‘추정’과 ‘의도’로 분리된다는 점을 관찰하였다. 상황의 변화 가능성 여부에 따라 행위성이 높은 서술어 및 1인칭 주어는 의도의 의미로 해석되는 반면, 상태의 지속성을 표시하는 서술어나 논리적으로 화자의 의도가 개입하기 어려운 2, 3인칭 주어인 경우 추정의 의미로 해석됨을 밝혔다. 이에 따라 (4b)는 추정의 의미, (5)는 의도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향을 보인다.

(4) b. 사장님 말씀이 있으실까요?
(5) 제가 가져 올까요?

또한, 적절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아래 (6)과 같이 한 문장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중의성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6) 내가 경찰에 잡힐까? (김하수, 1979, p. 65)

‘을까’에 대해 박재연(2006, 2013, p. 279)도 김하수(1979)의 관찰을 바탕으로 의문형 어미로서 “추측과 의도”라는 “양태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의문문에서 물음의 대상이 청자의 추측(7) 혹은 의도(8)라는 것이다.

(7) 내일 비가 올까? (박재연, 2013, p. 279)

(8) {내가, *네가, *철수가} 먼저 나갈까? (박재연, 2013, p. 279)

또한, 추측은 인식양태의 범주에 있기 때문에 주어의 인칭에 제약이 없는 반면, 화자의 행위에 대한 청자의 의견을 구하는 ‘의도’의 의미를 위해서는 (8)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1인칭으로 제한된다는 것도 지적하였다. 물론, 1인칭 제약은 주어가 화자로만 제한되고 청자를 배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화자와 청자가 공동 행위주인 경우 아래 (9)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1인칭이며 청유형 의미를 가진다.

(9) (우리) 같이 나갈까?

반면, 예문 (10)은 비실현 주어가 2인칭으로서 일반적인 1인칭 제약에서 벗어난 용법으로 쓰이고 있다.

(10) 신분증 좀 보여 주실까요? (박재연, 2013, p. 282)

이 과정을 박재연(2013, p. 282)은 “인접성에 기반한 환유적 과정”으로 분석하며 명령화 행에 인접한 청유화행을 빌어 완곡한 명령의 효과를 가지게 하여 1인칭에서 2인칭으로 행위주가 전환된 것으로 설명한다.

강영리(2016)는 주로 의도에 초점을 맞춰 ‘을까’의 의미적 특성을 기술하고 있다. 청유표현에서 ‘을까’의 경우, 다른 청유형 어미 ‘자’에 비해 “청자에게 화자의 행위도 정해지지 않았음을 표현함으로써 승낙·거절 어느 쪽을 택하여도 부담이 없음을 명시해 주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해석한다(강영리, 2016, p. 25).. 반면, 청유형 어미 ‘자’는 청자에게 행위를 직접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더 강한 표현이라고 보았다.

또한 아래 예문 (11)과 같이 요청화행으로 사용되는 경우, 같은 의문문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을까’ 형태가 ‘어’, ‘니’, ‘나’ 형태보다 공손성의 정도가 높음을 관찰하였다.

(11) a.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볼 수 없을까요? (강영리, 2016, p. 38)

b.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볼 수 없나요?

c.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볼 수 없어요?

d.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볼 수 없니?

우선 아래 예문 (12a)와 (12b)는 요청화행이 아닐 경우, 독백과 같이 스스로에 대한 질문(자문)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12c)와 (12d)의 경우 불가능하다. 독백으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상대의 응답을 반드시 요구한다는 점에서 상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의미적 차이가 요청화행에도 잔존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 (12) a. 내가 과연 살아 남을 수 있을까?
 b. 내가 과연 살아 남을 수 있나?
 c. 내가 과연 살아 남을 수 있어?
 d. 내가 과연 살아 남을 수 있니?

또한 자문이 가능한 ‘을까?’와 ‘나’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코퍼스 분석에서 ‘을 수 있’과 같이 나타나 요청화행으로 쓰이는 경우 ‘을까?’ 표현이 ‘나’ 표현에 비해 상대에 대한 요구의 정도가 적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아래 (13a) 문장은 ‘나’로 구성된 요청화행 문장인데 청자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질문이다. 반면 (13b) 문장은 ‘을까?’가 쓰여 화자가 행위를 한다는 전제가 있다.

- (13) a. 회장님 지금 어떤 상탠지 좀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강영리, 2016, p. 38)
 b. 죄송한데 안지선 씨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예문 (13)에서 어미는 반대로 교체하더라도 문장의 구성은 가능하다. 그러나, 핵심은 표 1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코퍼스 자료를 분석결과 (13)의 패턴처럼 ‘을까?’의 경우에 압도적으로 화자의 행위를 전제한다는 점이다.

표 1. ‘을 수 있나요?’ vs. ‘을 수 있을까요?’: 전제되는 행위자 (강영리, 2016, p. 38)

		을 수 있나(요)?	을 수 있을까(요)?
요청의 유형	청자의 행위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청자에게 요청함	40.6% (54/133)	5.3% (15/462)
	화자의 행위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청자에게 요청함	60.4% (79/133)	94.7% (447/462)

종합하면, ‘을까?’는 의문형이기 때문에 ‘자’ 종결형 보다는 덜 직접적이다. 또한 같은 의문형 비교에서 ‘나’ 종결형 보다 상대방에 요구하는 바가 적다는 점 때문에 청유화행으로 발화되는 경우 공손함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결과적으로 의도의 의미를 가지는 ‘을까?’는 기본적으로 1인칭 혹은 1인칭+2인칭 주어를 바탕으로 의문문의 형태에서 청유형

용법으로 사용된다. 상대방의 의견과 허락을 구한다는 점에서 공손한 표현으로 발달하여 문법화 과정을 거쳤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을까요?’가 공손한 요청을 나타내는 대표적으로 선호되는 표현이 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2.2. ‘실까요?’

본 절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을까’의 의미 중에서 예문 (1)에 나타난 ‘실까요’ 구문과 관련된 것은 추측의 의미로 국한하여 논의한다.

(1)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청유형 의미로 해석되는 아래 예문 (14)의 경우, 주어가 화자와 청자가 포함된 포괄적 ‘우리’(inclusive ‘we’)로 분석된다.

(14) 같이 가실까요?

또한 청자가 배제된 폐쇄적 ‘우리’(exclusive ‘we’)로 분석되는 경우에는 예문 (15)와 같이 비문이 된다.

(15) *(저희가) 떠나실까요?

이는 존대어미 ‘시’가 (14)와 달리 청자가 포함되지 않은 1인칭 주어에 사용된 것이다. 자신에 대한 존대는 불가능하므로 당연히 예측되는 결과이다.

반면, 위의 예문 (1)에서는 주어가 2인칭이기 때문에 청유나 허락을 요구하는 의미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¹⁾ 이에 따라 추측의 의미만 살아 남는다. 하지만, 예문 (1)이 비표준적인 이유는 추측의 의미가 2인칭을 주어로 하는 의문문에 사용되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2인칭 주어가 허용되는 표준적 사용이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예문 (16)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불가능하지는 않다.²⁾

(16) [취중에 상처를 입은 환자에게] 팔에 상처가 언제 생겼을까요?

1) 2인칭 주어에게 허락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락이라고 개념화하지 않으며, 제안/제의(propose/offer), 혹은 요청(request)라는 다른 개념으로 분류된다.

2) 표면상으로 본 문장의 주어는 ‘상처’로 분석할 수도 있으나 청자가 비실현된 이중주어 구문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라 본다.

따라서 핵심은 주어의 인칭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엄밀하게는 ‘을까’에 내재된 약한 추측의 의미가 어울리는 상황이 3인칭 주어에서는 쉽게 발견되지만, 2인칭 주어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위의 예문 (4)에서 3인칭 ‘아버님’과 ‘사장님’의 일정에 관한 물음에서 당사자 본인이 아닌 청자가 추측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전제이다.

- (4) a. 아버님이 내일 오실까요?
b. 사장님 말씀이 있으실까요?

반면에, 아래에 다시 제시한 위의 예문 (1)과 예문 (17)에서 청자의 약한 추측을 묻는 것은 표준적 사용의 전통에서는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다시 말해, 본인의 심리적 상태의 파악 (궁금한 사항의 유무)과 자신의 자녀 숫자의 인지 (기본적 가족 상황)는 약한 추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1)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17) 자녀가 몇 분이실까요?

기본적인 인지상태는 청자가 즉각적으로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약한’ 추측이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장은 자신의 지나친 객관화 혹은 ‘유체이탈’적 화법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비표준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물론, 이러한 유형의 변화가 한국어에서 처음 발생한 것은 아니다. 다음에 제시한 예문 (18)도 위와 유사한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장의 사용은 역사가 짧지 않다.³⁾ ‘것 같아요’라는 표현은 (19)와 같은 문장에서 추측을 나타낼 때 쓰이는 표준적 표현이다. 그러나 이를 확장하여 (18)과 같이 자신의 신조와 선호를 동일한 표현으로 서술하는 것은 지나친 자기 객관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 (18) a. 저는 정의가 결국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b. 저는 짜장면 보다 짬뽕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19) 이번 홍수는 기후변화의 영향인 것 같아요.

이상에서 언급한 비표준적 사용 (1), (17), (18)에 대응한 표준적 사용으로 (20)을 제시할 수 있겠다.

3) 주저자의 국어 선생님은 1970년대 초반 이 표현이 사용되는 것을 개탄하였다.

- (20) a.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b. 자녀가 몇 분이신가요?
c. 저는 정의가 결국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d. 저는 짜장면 보다 짬뽕을 좋아 합니다.

두 유형의 의미적 차이는 단언성(assertiveness)에 있다. 단언적 표현인 (20)에서 추측적 의미가 추가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변화의 사례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가 함의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다음 절에서 단정적 표현의 회피와 공손성의 상관관계를 논의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다.

3. ‘실게요’ 분석

위에서 언급한 대로 ‘실까요?’에 비해 ‘실게요’ 구문에 대한 높은 관심도는 다수의 선행 연구로 이어졌다. 본 절에서는 이를 검토하고 앞에서 논의한 ‘을까’와 ‘실게요’가 어떻게 연결되어 설명될 수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3.1. 선행연구

조숙환(2009)은 서두에서 언급한 비표준 예문 (2)에 대해 한 문장에 두 개의 관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화자(간호사)가 청자(환자)에게 요청하는 문장 “가실거예요”를 발화하는 도중 감정이입이 발생하여 청자로부터 예상되는 응답 “들어 갈게요”와 융합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하였다.

- (2) 다음 차례에 들어 가실게요. (조숙환, 2009, p. 114)

조숙환(2009)은 Fauconnier(1997, 2001)의 심성공간(mental space)이론에서 제시한 심리적 공간에 존재한다고 가정되는 관점(view point)과 감정이입(empathy)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화자의 심성공간과 청자의 심성공간은 통상 독립적인 것인데, 이 경우는 감정이입의 결과 동일한 공간으로 융합이 발생하여 화자가 청자의 관점에서 발화하게 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융합에 기초한 설명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해당 문장은 완전한 융합이 발생하여 화자와 청자의 관점이 일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존재어미 ‘시’의 존재 때문에 “들어 가시” 부분은 화자의 관점일 수 밖에 없고, 이후 연결되는 “을게요”는 청자의

관점이다. 따라서 전반부는 청자의 관점이 배제되고 후반부는 화자의 관점이 배제되어 있다. 다시 말해, 관점의 전환이 발생한 것이지 융합이 발생하여 화자와 청자가 이를 공유한 것으로 설명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 설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융합에 시간성을 도입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관점이 존재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요청하는 문장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실거예요”의 정체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주어진 발화상황에서는 “가세요”, “가시죠?”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오히려 “가실거예요”가 다소 부자연스러운 발화이다. 융합의 결과로 제시된 “가실게요”가 동사의 어떤 형태와 “갈게요”의 융합인지 불분명하며 화자의 추정되는 발화에서 단지 공손형 ‘시’만 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조숙환(2009)은 경험적 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박재연(2013)은 이 구문을 환유적 의미확장에 의한 행위주 변동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을게’의 기본 의미로 화자의 의도와 청자에게 이익이 되는 의미성분이 내포된 ‘약속’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예문 (21b)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청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을게’가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풀이한다.

- (21) a. 내가 퇴근하고 나서 청소할게. (박재연, 2013, p. 263)
 b. ??네 그림을 내가 망쳐 놓을게.

기본 의미에서 확장된 2단계 의미는 ‘청자를 고려한 화자의 의도’로 파악되었다. 예를 들어 다음 예문 (22)는 약속의 의미는 없이 단순한 ‘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22) 기사님, 저 내릴게요. (박재연, 2013, p. 266)

‘청자를 고려한’ 화자의 의도라는 점은 예문 (22)와 (23)을 비교할 때 차이가 드러난다.

- (23) 기사님, 저 내릴래요. (박재연, 2013, p. 266)

두 문장의 비교에서 예문 (23)이 단순한 의도의 서술이라면 (22)는 상대를 고려한 부탁으로 ‘문을 열어 달라’는 요청의 간접화행으로 쉽게 사용될 수 있는 문장이라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로 ‘청자의 행위에 대한 화자의 의도’로 의미 확장이 일어난 결과가 ‘실게요’ 구문의 본질이라고 파악한다. 이와 같은 의미확장은 ‘실게요’ 구문에만 특별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며, 예문 (24)와 같이 기본적으로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겠’에서도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 (24) a. 광고 들으시겠습니다. (박재연, 2013, p. 269)

- b. 우리 비행기는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 c. 대통령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이에 따라 예문 (24b)는 아래 (25)와 의미, 기능적으로 호환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하였다.

(25) 우리 비행기를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시키겠습니다. (박재연, 2013, p. 270)

하지만 위의 예문 (24)를 2인칭이나 3인칭 주어의 행동을 요구하는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하기에는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24b)와 (25)의 경우 해당 문장이 조종사의 발화가 아니라 안내 방송 전담 승무원의 발화라면 (24b)는 가능하지만 (25)는 부자연스러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25)는 행위주가 화자여야 하지만 (24b)는 그런 조건이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마찬가지로, 예문 (24)를 직접화행 혹은 사동의 형태로 (26)과 같이 변형한다면 동일한 맥락에서 사용될 수는 없을 것으로 관찰된다.

- (26) a. ??광고 들으세요.
b. ??대통령님, 입장하세요.
c. ??대통령께서 입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실게요’ 구문은 아래와 (27)과 같이 직접화행으로 전환하더라도 공손성에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허용성에는 문제가 없다.

(27) 다음 차례에 들어 가세요.

다시 말해, 임동훈(2001), 박재연(2006)에서 제안한 대로 계획된 미래를 나타내는 ‘겠’의 용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전에 계획된 방송 프로그램, 행사의 식순, 비행 스케줄 등을 나타내는 시제적 속성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박재연(2013)이 주장하는 환유적 의미확장에 의한 행위주 변동이라는 제안은 어떤 점에서 환유적인지 불분명하다. 환유라는 장치는 이미 존재하는 언어기호에 새로운 의미를 추가하는 방식인데, 인접성과 포함성 등 직관적 관계가 가능한 경우에 성립하며 일반적으로 특정 언어에 국한되지 않고 범어적으로 활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환유의 대표적 기능으로서 서술의 편이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28)에서 the ham sandwich와 ‘김치찌개’는 각각 the person who ordered the ham sandwich, ‘평소에 김치찌개 시키는 분’으로 길게 서술해야 하는 것을 간략하게 서술하는 편이성을 제공한다.

- (28) a. The ham sandwich is waiting for his check. (Lakoff & Johnson, 1980, p. 35)
 b. 김치찌개는 오늘 안 오셨네요?

하지만 ‘을게’와 관련되어 주장되는 환유적 의미확장에서는 단계별 관계가 직관적이지 않고 서술의 편이성도 드러나지 않는다. 환유가 행위자 변동이라는 차원에서만 작동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비직관적 관계를 환유로 설명하는 것은 환유의 기능을 지나치게 강력하고 자의적으로 만들어 그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1단계에서 2단계로의 확장은 반드시 필요한 단계인지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약속의 의미에서 청자를 고려한 화자의 의도로 확장하였다기 보다는 1, 2단계를 통합하여 ‘허락을 전제한 의도’라는 의미를 설정하면 따로 단계를 도입하지 않고도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약속’의 의미와 ‘청자를 고려한 화자의 의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29)와 같은 문장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다.

- (29) 그럼 다음 달 부터 용돈 끊을게.

문장 (29)는 약속이라기 보다 협박에 가깝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고 허락을 전제한 협박이다. 청자가 그렇게 나오면 용돈을 끊겠다는 협박이다. 이 문장은 약속이 아니고 청자를 고려하지도 않기 때문에 박재연(2013)의 방식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을게’는 일반적으로 허락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청자에 우호적이라는 의미가 도출된 것이라 본다. 다시 말해, ‘청자에 우호적’ 의미는 기본적인 것이 아니며, 약속의 의미도 마찬가지로 ‘청자의 허락을 전제한 화자의 의도’에서 파생된 의미라고 파악된다.

박미은(2016)은 ‘실게요’ 구문이 간접 지시 화행으로 사용되는 것을 분석하여, 이 구문의 사용동기를 발화 수반 효과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우선 ‘을게’, ‘을래’, ‘을거’를 비교하여 ‘을게’가 상대를 고려한 화자의 의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앞서 언급한 박재연(2013)의 관찰을 확인한다. 이에 따라, 아래 예문 (30)에서 ‘을래’와 ‘을거’는 청자를 고려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호의로서 제안하는 (30a)에 비해 (30b,c)는 부자연스럽게 여겨진다는 것이다.

- (30) a. 너를 위해서 컴퓨터를 내가 고칠게. (박미은, 2016, p. 141)
 b. ?너를 위해서 컴퓨터를 내가 고칠래.
 c. ?너를 위해서 컴퓨터를 내가 고칠 거야.

마찬가지로, 거절의 응대를 포함 경우 아래 예문 (31)과 같이 ‘을게’는 자연스럽게 읽음

을 관찰하였다.

- (31) 와서 저녁 먹어라. (박미은, 2016, p. 142)
- a. *아니요, 안 먹을게요.
 - b. 아니요, 안 먹을래요.
 - c. 아니요, 안 먹을 거예요.

이를 바탕으로 ‘을게’가 약속화행 및 알림을 통한 지시화행에 이른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아래 예문 (32a)에 비해 (32c,d)는 부자연스럽다는 점에서 약속화행의 가능성에 대한 이러한 차이는 분명히 관찰된다.

- (32) 엄마, 햄 구워 주세요. [햄이 없음] (박미은, 2016, p. 143)
- a. 오늘은 계란프라이 먹어. 내일 꼭 햄 구워 줄게.
 - b. 오늘은 계란프라이 먹어. ?내일 꼭 햄 구워 줄래.
 - c. 오늘은 계란프라이 먹어. ?내일 꼭 햄 구워 줄 거야.

박미은(2016)은 추가로 지시화행으로 사용되는 예로 (33)을 제시하고 있다.

- (33) 선생님, 가위 좀 빌릴게요.

이 예문의 상황은 위와 다르게 청자의 ‘빌려주는’ 행위가 필수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자의 행위에 대한 화자의 의도”라는 박재연(2013)의 개념을 도입하여 ‘을게’에 청자가 수행할 행동을 알리는 의미가 있으므로 지시화행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한다. 이를 확장하여 설명하면서 아래 (34)와 같은 문장은 청자의 행동 부과에 초점이 주어져 지시발화를 수행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 (34) a. (피디가 출연자에게) 지금 들어 갈게요. (박미은, 2016, p. 144)
b.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지금 운동장으로 갈게요.

하지만, 이 문장은 그 동안의 예문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예문으로서, 이는 논리의 비약을 내포하고 있다. ‘실게요’ 구문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 근거로서 해당 구문을 사용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존대형 ‘시’가 빠진 것은 청자가 화자에 비해 하위서열이기 때문이며, 이 문장은 ‘실게요’와 본질적으로 같은 문장이다. 다만 ‘실게요’ 구문에서 존대형을 삭제한 것에 불과하며, 앞에서 제시한 대표적인 예문 (2)보다 시기적으로도 후행한 것

으로 판단된다. 존대형이 먼저 사용되고 전파되면서 비존대형이 등장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한 것이지만, 특정 문장이 지시화행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항상 특정 행위에 대한 분명한 의도가 어휘 의미로서 존재할 필요는 없다. 간접화행의 예는 대부분 이와 같다. 예를 들어, “방이 엄청 덥네”라는 상황을 서술하는 문장이 적절한 맥락에서는 “어어컨 켜 주세요”라는 요청화행으로 기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고 하여 “방이 엄청 덥네”라는 문장을 놓고 의미확장을 이야기 하지는 않는다. 특정 화행과 이를 유발하는 문장의 관계를 지나치게 직접적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는 의미파악에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가위 좀 빌릴게요”라는 예문 (33)은 오히려 물품통에 있는 가위를 화자가 직접 가져 가면서 청자의 허락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발화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판단된다. 이 상황의 적절성은 차치하고 ‘을게’ 구문이 청자의 허락을 전제한 화자의 의도라는 필자의 제안을 채택한다면 위에 제시된 모든 예문은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을게’ 구문이 청자를 고려한 맥락에 자연스럽다는 박미은(2016)의 관찰은 박재연(2013)에서 관찰된 내용과 일치하며 본 구문이 이러한 속성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안주호(2017)은 ‘실게요’의 형성과정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서비스 직종에서 구문이 발생된 것에 착안하여 직접적인 명령은 고객의 체면손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공손성이 보장되는 간접 표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명령형을 대신할 만한 행동 수반력인 강제성을 유지할 표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였다.

아래 두 예문은 서비스 현장의 요구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문 (35)은 직접적인 명령조로 공손성에 위배가 되고, 반면 (36)은 지나치게 약한 강제력 때문에 화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 (35) a. 이쪽에서 주사 한 번 맞으십시오/맞으세요. (안주호, 2017, p. 54)
- b. 고객님, 주차는 이쪽으로 하십시오/하세요.
- (36) a. 이쪽에서 주사 한 번 맞으시겠어요. (안주호, 2017, p. 55)
- b. 고객님, 주차는 이쪽으로 하시겠어요.

이런 점에서 새로운 문형인 (37)이 채택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 (37) a. 이쪽에서 주사 한 번 맞으실게요. (안주호, 2017, p. 54)
- b. 고객님, 주차는 이쪽으로 하실게요.

강제력과 공손성에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이 문형이 채택되어 널리 전파되고 있는 것은 분명 해당 구문이 서비스 산업의 수요에 대한 적절한 매력있는 구문임을 방

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안주호(2017)의 형성과정에 대한 분석은 조숙환(2009), 박재연(2013), 박미은(2016) 등의 기존 분석과 다르다. ‘실게요’를 ‘시+르게+요’의 결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안주호(2017, p. 57)는 ‘실게요’가 ‘을 것이예요’에서 ‘을 거예요’를 거쳐 ‘을게요’로 파생된 것으로 분석한다. 세 가지 구문이 동일하게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면서 “청자에게 예측된 행동을 알리는 ‘고지’”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다음 예문의 세 문장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 | | |
|---------------------|------------------------------|
| (38) a. 환자분, 주사 한 번 | 맞으실 것이예요. (안주호, 2017, p. 57) |
| b. | 맞으실 거예요. |
| c. | 맞으실게요. |

하지만, (38a,b)는 동일한 의미를 갖지만 (38c)는 이들과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이 분석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우선, (38c)는 시간적 직접성을 갖지만 (38a,b)는 이런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는 청자에 대한 배려가 (38c)에는 남아 있어 공손성이 유지되는데 비해 (38a,b)에는 이런 의미가 결핍되어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관찰된 청자의 대한 배려가 ‘을게’의 어휘적 의미라는 결론과 ‘실게요’에도 동일한 의미가 남아 있다는 관찰은 ‘실게요’가 ‘을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는 분석에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3.2. 분석 제안

위 2.1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의문형으로 쓰이는 ‘을까’는 ‘추측’과 ‘의도’로 분리되는 두 유형의 의미를 가지며 의도에 국한하여 종합하면 다음 (3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39) ‘을까’의 의도와 관련된 의미 특성
- 청자에 대한 요구와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 의문형이기 때문에 덜 직접적이다.
 - 청자보다 화자의 행위를 전제한다.
 - 청자의 의견과 허락을 구한다.
 - 청유형으로 쓰인다.

‘을까’는 청자에 대한 일방적 지시보다는 공동행위를 나타내는 청유문장을 구성하며, 청자의 의견과 허락을 구하는 기능으로 사용되어 공손의 정도가 매우 높다.

이에 따라, 다음 예문 (40)은 서비스 환경 종사자들이 쓸 수 있는 대표적 표현이다.

(40) 이쪽으로 가실까요?

이 문장은 고객과 종업원의 동행이 흔하게 발생하는 안내 데스크와 같은 환경에서 청유문장으로 주로 쓰인다는 점에서 높은 공손성이 유지된다. 이에 대해 고객은 (41)과 같은 언어적 응답과 함께 종업원을 따라가는 행동이 수반될 것이다.⁴⁾

(41) 네, 갈게요.

서비스 환경에서 종업원이 (40)을 발화한 경우, (41)과 같은 응답은 (간혹 암묵적 긍정 대답과 신체적 응답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 예외 없이 청자로부터 예상된다.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청자로부터 (41)과 같은 응답이 예상된다면, 시간적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대화의 단계를 축소하고자 하는 동기는 충분하다고 본다. 이에 화자가 청자의 답변을 대신하는 것이 단계를 축소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비표준적 예문 (42)가 탄생하게 된다.

(42) 이쪽으로 가실게요.

결론적으로, 비표준 예문 (42)에 대한 분석으로서 예상되는 청자의 응답을 화자가 대신 수행하면서 존대형 어미 ‘시’를 덧붙인 것이라는 제안이 본 논문의 핵심이다.

예외 없이 예상되는 청자의 응답을 화자가 대신한다는 분석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이 가설을 수용한다면, ‘갈게요’가 ‘가실게요’로 변화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현재 서비스 업계의 지형에서 존대형 어미 ‘시’를 붙이지 않는 문장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 가설은 주어진 한 사례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임기응변적 제안이 아니다. 유사 사례로서 다음 (43)과 같은 문장에 대한 설명과 맥을 같이 한다.

- (43) a. 오징어나 호두과자 있어요.
b. 콜라나 사이다 있어요.
c. 계란이나 시금치 팔아요.

예문 (43a,b)는 과거 장거리 열차 혹은 시외버스 안에서 판매상들이 애용하던 문장이었다(윤재학, 2000, p. 43). 예문 (43c)는 골목을 돌던 행상들이 처음에는 육성으로, 최근에는 녹음된 확성기로 전하는 문장 유형이다.

4) 언어적 응답은 생략되고 행동만으로 응답하는 경우도 있다.

이 문장 유형은 특수조사 ‘이나’의 의미론적 설명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접의 의미(or)로 쓰이는 ‘이나’가 예문 (43)에서는 연접의 의미(and)로 쓰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전통적인 기존의 설명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문에서 오징어와 호두과자, 콜라와 사이다, 계란과 시금치는 양자택일의 의미가 아니라 모두 살 수 있다는 연접(and)의 의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간략히 소개하며 본 논문의 가설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이겠다.

접속구문에 사용되는 특수조사 ‘이나’는 일반적으로 이접적으로 쓰여 예문 (44)와 같이 영어의 ‘or’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윤재학, 2000, p. 44).

- (44) a. 내일 전화나 팩스가 올 겁니다. (A or B)
b. You will receive a phone call or fax tomorrow.

반면에 연접적 의미로 쓰이는 경우로서 예문 (43) 유형 외에 다음 두 가지 유형 (45)와 (46)이 관찰된다.

- (45) a. 아버지는 낚시나 사냥을 즐겨 하셨다. (윤재학, 2000, p. 44)
b. 김교수는 역사나 철학을 강의했다.
c. 그 극장에서는 연극이나 고전 영화가 상영된다.
(46) a. 고급 호텔에서는 도박이나 매춘이 금지되어 있다. (윤재학, 2000, p. 45)
b. 안마시술소에서는 도박이나 매춘이 허용된다.
c. 탕수육이나 팔보채를 시키면 번개는 서비스로 군만두 대신 소주를 주었다.

예문 (46)에 나타나는 연접성은 이접적 연결어의 범어적 현상으로서 Kamp(1978) 등에서 이미 다루어진 내용이다. 즉, 논리학적으로 조건문, 부정어 및 범조동사의 작용역 범위 안에 있는 이접적 연결어는 범위 밖에 있는 연접적 연결어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윤재학, 2000, p. 45).

반면, 예문 (45)는 이와는 다른 유형으로서 비록 ‘이나’에 독특한 현상이지만 총칭적 문장(generic sentence)의 환경에 나타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총칭연산자(generic operator)가 이접적 연결어에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연접적 연결어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특정 상태의 지속이나 특정 인물의 일반적 성향은 절반으로 나누어도 그 상태나 성향이 유지되는 배분성(distributivity)을 갖고 있다. 이를 수의 개념으로 비유한다면, 원소의 갯수가 무한한 실수(實數)의 집합을 반분해도 그 결과로 생성된 집합은 실수의 집합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문 (43)은 위에 제시한 형식 의미론적 방법론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화용적

설명에서 해답을 찾을 수 밖에 없다고 파악된다. 즉 예문 (47)과 같이 고객으로부터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예문 (43가)라는 가설을 통해 설명될 수 있음을 보였다. 예문 (47)에 나타나는 ‘이나’는 정상적인 이접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전제로 하는 답변으로서 (43가)는 연접적 의미로 받아 들여진다.

- (47) 오징어나 호두과자 있어요?
 (43) a. 오징어나 호두과자 있어요.

이 설명은 위에서 언급한 전제된 질문 (40)에 대한 예상된 응답으로서 발화된 것이 (42)라는 점에서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40) 이쪽으로 가실까요?
 (42) 이쪽으로 가실게요.

두 사례가 모두 질문을 전제로 한 답변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 외에도 이러한 발화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많은 복잡한 서비스 환경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발화환경이 시간을 다투는 서비스 현장이라는 점에서 단계 축소에 대한 분명한 동기는 존재한다.

대화 단계의 축소는 업무의 시간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반면 공손성에서 희생이 따른다. 대화 단계를 축소하는 것과 간접 화행 대신 직접 화행을 사용하는 것은 공손성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Lakoff, 1973; Leech, 1983; Brown & Levinson, 1987). 대표적인 공손 전략은 직접적이고 단어적인 표현을 회피하고, 간접표현을 통하여 청자가 대화함축을 이끌어 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예문 (42)가 자체적으로는 단계가 생략된 점에서 다소간의 강요의 요소가 존재하고 단언적 색채를 띠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강요 자체가 바로 비공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래 예문 (48a,b)는 상대방에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강요된 것도 무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대방의 안위에 대한 염려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48c)와 같은 단언적 표현도 공손한 문장으로 간주된다.

- (48) a. 이거는 반드시 먹어야 해.
 b. You must try this.
 c. You must be tired.

또한, ‘을까/을게’가 내포하는 허락을 요청한다는 점과 청유형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수준의 공손성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이 표현이 다소간의 공손성이 희생되더라도 불구

하고 효율성 증대라는 이점 때문에 서비스 환경에서 용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설명 방식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해법보다 개선된 점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할 수 있다. 기존의 논의는 주어진 현상적인 결과가 어떻게 도출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어떻게’의 물음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논의는 불충분하며 본 논문은 ‘왜’에 대한 논의로서 제안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 비표준 공손표현과 사회적 역학관계

부모에게 존대어를 쓰던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시절의 자녀가 청소년 시기부터 반말을 한다. 유치원 시절에 받은 예절 교육이 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한다. 21세기 현재 자녀들은 가족 구성원 간에 수평적 관계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⁵⁾ 반면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호칭어와 공손법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현재의 한국인이다. 이에 따라 예문 (49)와 같은 비표준 공손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다.

(1)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49) 커피 나오셨습니다.

본 절에서는 현재 한국 사회의 언어환경에 대해 잠시 논의하여 이와 같은 비표준 공손표현이 등장하는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4.1. 높은 호칭어 교체율과 대명사 결핍

비공식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내집단 안에서는 존대법이 파괴되는 방향으로 언어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가족, 친지 등 친한 관계에서는 서열과 무관하게 반말이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서열관계는 호칭어로 유지되고 이에 대한 민감도는 여전히 높다는 점이 Yoon(2021)에 지적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아래 (50)과 같은 사용이 일반화되는 것이 관찰된다.

(50) a. 할머니, 우리 피자 먹자.

b. 선배, 내 부탁 좀 들어 줘.

c. 언니, 나한테 정말 이럴거야?

5) “부모에게 반말”에 대한 구글검색 결과 20만 이상의 포스트에서 부모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현상을 다루고 있음을 보여 준다.

반면에 외집단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칭어는 물론 존대법이 철저히 지켜지거나 오히려 강화되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다음 4.2에서 설명할 사물 존대가 만연하고 있고 호칭의 인플레이션 속도도 높다. 20대 여종업원을 더 이상 ‘아가씨’라 부를 수 없고, 중년 남자는 ‘아저씨’ 대신 ‘사장님’이라 불러야 한다. 또한 여성 청소원의 호칭은 아래와 같은 극적인 변화를 거쳐 현재는 대통령 부인의 호칭인 ‘여사님’이다.⁶⁾

(51) 아줌마 > 아주머니 > 사모님 > 여사님

호칭의 인플레이션은 한국어에 존대형 2인칭 대명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과 맥을 같이 한다 (Yoon 2021). 상급자나 외부인을 지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you*에 해당하는 대명사가 없다. ‘너/나’를 사용하는 것은 하대의 극치로 받아들여지므로 가까운 친구 사이 이외에는 사용이 회피된다. 이는 정의 자체가 의미의 결핍을 함의하고 지시기능만 있는 대명사의 특성상 존대의 의미가 전달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당신’의 경우와 같이 내포되어 있는 약간의 존칭의 의미마저도 빠른 인플레이션을 겪는 호칭어의 운명을 고려할 때, 2인칭 대명사가 존대형으로 유지되기 힘들다. 사회적 인정욕구가 언어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4.2. 공손 사회: 올바르기보다는 안전하기

아래 문장 유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개탄의 견해가 많다. 사물 존대로서 비문이라는 점에서다.

(49) 커피 나오셨습니다.

이런 문장에 대해 서비스업 종사자가 비문법적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언이 많다. 일부 고객이 반말로 알아 듣거나 공손하지 않다고 항의를 한다는 것이다.

(52) 2017년 6월 8일자 [인터넷] 꽃비뉴스

이씨는 “사물 존칭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식하고 있지만 손님을 대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쓰게 된다”고 말했다. 손님은 왕이라는 명목 하에 무조건적인 서비스 정신을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가 이런 현상을 불렀다. 이씨는 “손님에게는 예의와 격식

6) 한겨레신문 2010년 4월 11일자 기사 제목으로 “파견 미화원에 ‘여사님’, 직원존중이 서비스질 높여”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작성되었으며, <당근마켓>에는 2022년 현재 다수의 “청소여사님 모십니다”, “미화여사님 모십니다” 광고가 발견된다.

을 갖춰야 한다는 강박이 있다”며 “사물 존칭을 쓰지 않으면 클레임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이라는 걸 알아도 계속 사물 존칭을 쓰게 된다”고 털어놓았다.

또한 온라인 사이트 theqoo.net에는 다음과 같은 게시물이 있고 이에 공감하는 아르바이트 경력자들의 답글이 많다.

(53) ‘커피 나왔습니다.’ 이거 비문인거 알고도 쓰는 사람들 많음. ‘커피 나왔습니다’ 하면 지랄하는 사람 많아서

사회적 요구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용은 당연한 서비스업의 태도여야 하는 것이다. 서비스 종사자는 올바른 문장의 사용보다는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참여자로서 올바른 처세다. 그러므로 사물 존대 문장의 사용자를 탓하기 보다는 알고도 비문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열악한 업무 환경을 탓해야 할 것이다.

언어는 사회를 반영한다. 가정에서 언어적 민주화가 진행되어 구성원 간에 존대어가 사라져 가는 반면, 사회에서는 언어적 공손성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높은 것으로 관찰된다. 개인의 자존감을 언어적 공손성에서라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본 논문에서 언급된 비표준적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적 변화를 촉발, 전파, 유지시키는 배경에는 개인과 사회의 공손성에 대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 점증하고 있는 비표준적 언어 사용의 두 사례를 살펴 보았다. 먼저, ‘실까요’ 구문을 고찰하였다. 청자가 정보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접근이 가능한 상황에서 약한 추측을 묻는다는 점에서 비표준적 사용이라는 것을 관찰하였다.

두 번째 사례로서, 1인칭 종결형 ‘을게요’에 존대형 어미 ‘시’가 결합하여 청자에 대한 지시화행으로 쓰이는 ‘실게요’ 구문을 고찰하였다. 화자의 질문에 대해 예외 없이 예상되는 청자의 답변을 화자가 대신 수행함으로써 발생된 결과로 분석하였다. 복잡한 서비스 환경에서 대화 단계의 축소를 통한 시간적 효율성 획득이라는 동기에 부응하는 언어적 변화라는 가설을 통해 선행연구에 비해 개선된 설명력의 제시를 시도하였다.

가정 내에서는 언어적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사회적으로는 인정심리와 존중에 대한 갈망이 팽배하다. 이 두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반적 언어생활과 연관되는지 살펴 보았다. 서비스 업종에서 공손성에 대한 고객의 요구는 꾸준하다. 이에 따라 공손성이

유지, 확대되는 방향으로 비표준적 공손표현이 발견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하였다. 또한 효율성을 위해 대화 단계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라도 최대한 공손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참고문헌

- 강영리. (2016). ‘-ㄴ까’의 의향 용법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하수. (1979). ‘-ㄴ까’의 의미와 통사적 특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 55-78.
- 박미은. (2016). 지시 화행에 사용되는 “-(으)실게요” 연구. *한국어 의미학*, 51, 137-154.
- 박재연. (2006).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서울: 태학사.
- 박재연. (2013). 한국어 의도 관련 어미의 환유적 확장. *국어학*, 68, 253-288.
- 안주호. (2017). 종결어미 {- (으)실게요}의 기능과 형성과정. *담화와 인지*, 24(1), 47-67.
- 윤재학. (2000). 연결적 ‘이나’. *언어와 정보*, 4(2), 41-54.
- 임동훈. (2001). ‘겠’의 용법과 역사적 해석. *국어학*, 37, 115-147.
- 조숙환. (2009). 국어 인식양태소 구조의 인지언어학적 접근: 시점 이동과 역동적 심성 공간의 융합. *언어*, 34(1), 113-132.
- Brown, P., & Levinson, S. C. (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mp, H. (1978). Semantics versus pragmatics. In G. Guenther & S. J. Schmit (Eds.), *Formal semantics and pragmatics for natural languages* (pp. 255-287). Reidel: Dordrecht.
- Lakoff, G., & Johnson, M.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off, R. (1973). The logic of politeness; or, minding your p’s and q’s. In *Papers from the 9th regional meeting*, 292-305.
- Leech, G. (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Longman.
- Yoon, J.-H. (2021). Semantic inflation and pronoun avoidance. *Linguistic Research*, 38(3), 469-490.

윤재학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전화: (031)201-2254
이메일: jyoon@khu.ac.kr

김기국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프랑스어학과 교수
전화: (031)201-2213
이메일: ggkim@khu.ac.kr

Received on September 29, 2022

Revised version received on December 13, 2022

Accepted on December 31, 2022